

[교회탐구 포럼04]
교회의 성(性), 잠금 해제?

성(性)만큼 여러 면에서 역설적 양상을 드러내는 주제도 없을 것이다. 성은 언제나 우리의 실존적 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우리가 성적 존재라는 사실을 매우 낮설어 한다. 역설적이면서도 복잡한 성을 젊은이들은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을까?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 걱정과 혼미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될 법이나 하겠는가? 이미 젊은이들의 의식과 정신상태는 성의 생리학적·신체적 차원이 성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말이다.

제4차 교회탐구포럼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의 성 의식과 성 행동이 어느 시점에, 또 어느 정도에 도달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침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성이란 무엇인가 - 성경적·신학적·윤리적·생리학적 관점에서-

이상원(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교수)

이상원 교수는 성의 정체를 파악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의 성 의식과 성 행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식하고, 성욕과 성교에 대한 통전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애썼다. 또한 성적 욕구와 성교는 단지 신체적·생리학적 차원에서만 파악해서는 안 되며, 더 넓은 인격적 연합과 사랑의 지평 안에서 파악할 때 그 본질과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인격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되므로, 성욕과 성교는 신학적 차원을 아울러 지닌다. 필자는 성경적·신학적·윤리적·생리학적 관점이 모두 통합된 시각에서 어떻게 성욕과 성교가 인격적 연합과 사랑의 지평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필자에 의하면 기독교의 아가페는 성욕과 성교의 진정한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규범이다. 성욕과 성교 실현의 필수적 지평인 인격적 연합과 아가페 사랑이 가능한 무대는 결혼 뿐이다. 이것이 성교가 결혼 질서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다. 결혼은 성적 동반자에 대한 아가페의 최선의 제도적 표현이다. 상대에 대한 인격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진정한 인격적 연합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성교를 가지는 것은 동반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것이며, 이는 동반자에 대한 사랑의 표현일 수 없다. 어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창조 시부터 종말의 날까지 지속되는 이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이 질서를 존중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표지들 가운데 하나다.

기독교 청년들의 성 의식 및 성 경험

정재영(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부소장)

정재영 교수의 “기독교 청년들의 성 의식 및 성 경험”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천 명의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2013년 11월 25일-12월 6일까지 14일 동안 온라인으로 시행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총 37개 항목 가운데 30개 항목이 성의 주제와 연관된 것으로서, 미혼인 기독교 청년들의 성 의식과 성 경험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성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되기도 하고 또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매개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 문제는 더 이상 은밀하게 덮어두거나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할 종류의 것이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혼전순결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1.3%, 실제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2%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기독교 청년들에게 단순히 이성교제나 스킨십 차원이 아닌 반드시 성 관련 교육을 병행해야 함을 알려준다. 특히 성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을 구분해 이성교제 단계에 따른 적절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성교제나 성 관련 교육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인 성 윤리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와 이번 포럼을 바탕으로 한국 교계에서 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바람직한 성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스킨십을 청문회에 -스킨십의 진화와 재평가-

송인규(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송인규 교수는 스킨십의 제반 사항을 그 문제점과 더불어 제시했다. 이는 그리스도인 젊은이들로 하여금 스킨십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자신의 이성교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일종의 안내를 하기 위함이다. 예전에 비해 젊은이들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성은 훨씬 더 깊이 젊은이들의 의식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고, 자유와 분방의 노래를 부르며 성을 먹고 마시며 살아내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은 혼란과 무질서에 떠내려가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상황에서 스킨십을 청문회에 불러냈다. 첫째 분단에서는 이성교제와 스킨십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기술했다. 둘째 분단은 스킨십이 오늘날의 위치를 점하게 된 사회·문화적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데 할애했다. 아마도 셋째 분단과 넷째 분단이 이 청문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분단에서는 스킨십의 유용성과 폐해성을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묘사하고자 힘썼다. 넷째 분단에서는 기독교계에서 스킨십 문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유형별로 정리했다. 마지막 다섯째 분단은 위의 내용에 기초해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스킨십의 사안과 관련해 어떤 태도와 방침을 견지해야 할지 안내하고 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성 문제에 대한 이해나 그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청년들의 성적 의식과 행습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또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알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 교회가 좀 더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성적 현주소에 관심을 쏟게 되고, 이로써 한국 교회의 미래를 떠맡을 그들이 좀 더 기록하고 성숙한 성 의식과 성 관념을 가지고 이 젊음의 시기를 헤쳐 나가길 바란다.

